

세월호 209일만에 수색 종료 이준석 선장 살인죄는 무죄



“더 이상의 고통 안된다”
실종자 9인가족들 요청
발견 가능성 희박·잠수 한계
정부도 판단...향후 인양 논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209일.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 9명에 대한 수중 수색이 종료됐다.

실종자 가족들은 “더 이상의 고통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수색중단을 요청했고, 정부 역시 “실종자 발견 가능성이 희박하고 무리한 수색은 또 다른 희생을 부를지도 모른다”며 수색 종료를 공식화했다. 이에 세월호 참사에 대한 향후 수습은 선체 인양 문제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4·22·23면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일 대국민발표를 통해 “수색이 장기간 반복되면서 이제 실종자를 발견할 가능

성이 희박해졌을 뿐만 아니라 안전에 관한 현장의 거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잠수 수색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며 수색 중단이 정부 입장임을 전했다.

현재 세월호 실종자는 단원호 학생 4명(남한철·박영인·조은화·허다윤), 교사 2명(고창석·양승진), 일반 승객 3명(권재근·권혁규·이영숙) 등 9명이다.

수색 종료 선언은 전문가들의 진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민간잠수사 등 전문가들은 세월호 침몰 후 시간이 많이 흘러 선체 내 격실의 붕괴 위험이 있는 데다, 겨울이 가까워지면서 해상 여건이 나빠져 수색이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도 정부 발표 후, 진도실내체육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색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아있지만 저희처럼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된다고 의견

을 모았다”며 수색중단을 요청했다. 실종자 가족들은 다만, 수중수색 활동을 중단하더라도 정부가 9명의 실종자를 찾기 위해 선체 인양 등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했다.

이 장관은 실종자 가족들에게 “아직 차가운 바다에 핏줄을 남겨둔 그분들의 가슴 절절한 용단에 죄인의 심정으로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실종자 수습을 위한 선체 인양에 대한 논의를 본격 시작할 예정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같은날 ‘세월호 두표정’

세월호 실종자 수색작업이 참사 발생 209일 만에 종료된 11일 오전, 전남 진도실내체육관에서 세월호 실종자 가족이 수색중단 결정 배경을 설명하고 향후 인양계획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왼쪽). 한편,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사고 피의자 15명의 1심 선고공판이 진행된 광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법원이 이 선장에 대해 유기치사·상 혐의만을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홍남

法 “퇴선명령 안한 증거없어”
유기치사·상혐의 36년 선고
기관장만 ‘살인’인정 30년형
나머지 피고 13명 5~20년형

사상 최악의 해상 사고로 기록된 세월호 참사의 핵심 책임자인 이준석(68) 선장에 대해 법원이 살인이 아닌 유기치사·상 혐의만을 인정해 징역 36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심이 모아졌던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11일 광주지법 형사11부(임정영 부장판사)는 세월호 선장 및 선원 1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준석에 대해 유기치사·상, 업무과실선박매물, 선원법,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6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이씨에 구형한 살인 및 살인미수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 선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장으로서는 법률상·계약상 승객들에 대해 구조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내에 대기중이던 승객을 버리고 세월호를 탈출하여 유기한 점”을 들어 유기치사·상 혐의를 인정했지만, “당시 이씨가 승객에게 퇴선명령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VTS(해상관제센터)기록과 진술을 종합해 볼때 이준석과 김영호(2등 항해사) 등이 퇴선명령을 내렸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며 이들의 세부적인 진술 내용이 다르다고 해서 퇴선명령 지시를 했다는 진술 자체가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씨와 김영호, 강원식(1등항해사) 등이 퇴선명령에 대해 허위 진술기로 모의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퇴선 이후 이들이 모의를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김지영·김영훈기자 jyg@kyeongin.com

문학터널 재정절감 속도낸다

최소수입보장 → 비용보전
보장 수익률 4%대 인하 등
시·운영사와 동의안 마련

인천시의 문학터널(민자도로) 사업 재구조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인천시는 ‘문학터널 재정 절감 방안 동의안’을 인천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문학터널 재정 지원을 줄이고자 문학터널 운영사인 국민공제회 등과 사업 재구조화에 관해 협의해 왔으며 개략적인 협의 결과를 토대로 동의안을 마련했다.

동의안은 현재 최소수입보장(MRG) 방식의 재정 지원 방식을 비용보전(SCS)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용보전 방식은 터널 운영비보다 통행료 수입이 적을 경우, 그 차액만 지원해 주는 것이다. 원적산터널, 만월산터널 재정 지원 방식도 올 4월 최소수입보장에서 비용보전으로 변경됐다.

동의안에는 문학터널 측에 보장해 주던 수익률을 4%대로 낮추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현재 시가 보장해주는 수익률의 절반 수준이다.

이 외에 문학터널측이 갖고 있는 통행료 조정권을 시가 확보하고, 지원금 지급 시기를 ‘연도별 지급’에서 ‘분기별 지급’으로 바꾸는 내용이 동의안에 있다.

이런 내용으로 사업 재구조화에 성공하면 문학터널에 들어가는 재정 지원금 규모가 매년 평균 5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시가 문학터널에 재정 지원을 해야 하는 기간은 2022년까지다. 이를 감안하면 향후 8년간 총 4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셈이다.

시 관계자는 “우리가 (문학터널 측에) 요구한 내용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세부적인 내용은 더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동의안은 다음 달 중순 시의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현준기자 upjh@kyeongin.com



넌 커서 뭐가 될래?

브레이크댄스로 각종 국제대회를 휩쓴 김기주 군
어려운 동작을 연습하는 것보다
어른들의 불편한 시선을 이겨내는 것이
김군은 더 힘들었습니다.



모닝모바일 (Morning of owl)
김기주 (만18세, 경기 수원)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경기도교육청이 응원합니다



“증세없는 복지의 한계 누리과정 정부 책임을”

시교육청 내년 예산 설명회
정치권·시민사회 공론화 제안
무상급식 전부 삭감해도
누리과정 감당불가 ‘선긋기’

누리과정·무상급식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인천시교육청이 ‘증세없는 복지의 한계’에 대한 공론화 필요성을 제안했다.

시교육청은 11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설명회를 열고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등 보편적 복지 확대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끝났다. 다만 전국 시·도교육청 재정위기를 계기로 ‘증세없는 복지의 한계’에 대해 정

치권과 시민사회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교육재정 위기를 불러온 근본 원인을 누리과정 지원예산이라고 지목한 시교육청은 “대통령이 약속한 것은 중앙정부, 교육감이 약속한 것은 교육청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을 다시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시교육청은 내년도 누리과정 지원

에 필요한 2천696억원의 41.9%인 1천130억원만 편성했다. 어린이집은 3.5개월분, 유치원은 7개월분만 반영했다. 시교육청 김진철 대변인은 “누리과정 미편성분을 모두 예산안에 반영할 경우 전체 가용재원(4천476억원)의 60%를 차지하게 된다”면서 “이런 경우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운영비를 50% 줄여야 해서 사실상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예산을 연계시키려는 것과 관련, 시교육청은 “무상급식 예산 385억원 전부를 삭감해도 누리과정을 감당하지는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시교육청은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믿는 학교 현장을 위해 ‘학교기본운영비’를 유지하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면서 “급식, 누리과정, 교육복지, 학교운영비는 아이들의 행복과 민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교육재정이 민생 재정’이란 방향을 잃지않기 위해

추동 무상급식을 유지하고 누리과정 예산 일부를 편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다음달 2일부터 시교육청이 제출한 총 2조7천43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김도현기자 kdh69@kyeongin.com

K팝 공연장, 경제성에 발목 잡히나

고양 한류월드

타당성보고서 결과 분석값 10이하... 낮은 수익률 예상 민간사업자 임대 만료이후 '애물단지 전략우려' 지적

고양 한류월드로의 유치가 결정된 케이팝(K-POP) 공연장의 경제성이 매우 낮아 민간사업자를 찾기가 쉽지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경기도의회 권철승(새정치·화성3)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타당성 분석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K-POP공연장의 B/C(경제성분석) 값은 두가지 안에 따라 최

대 0.64, 최하 0.47로 각각 나타났다. 경제성 분석값이 1이하이면 투자비용에 비해 수익이 적어 투자 효과가 없다는 의미로 보고서는 민간투자자가 참여하기에는 낮은 수익률이 예상된다고 결론냈다.

K-POP공연장 운영에 따른 전체 수익중 관람 수익과 광고 협찬, 명칭 사용권 등으로 발생하는 수익이 63.7%를 차지하는데 이 3가지 수익 구조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도가 30년간의 무상 임대기간이 끝난 후 민간투자자로부터 공연장을 인수받고 나면 예산을 쏟아부어야 하는 애물단지 시설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권 의원은 "임대기간 만료 이후에 도에 커다란 부담을 주는 시설이 될 수 있고, 그 전에 사업자가 (적자로 인해) 운영에서 손절 우려도 있다"며 "도는 내방객 숫자계산 방식을 재검토해 추진하겠다는데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항이라고 도가 밀어붙이는 것은 아닌

지 의심이 든다. 도가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 관계자는 "도의 경제성 분석에서는 B/C 값이 1이상 나왔다"며 "사업자가 운영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을 잘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K-POP공연장 건립사업은 오는 2017년까지 한류월드내 테마파크 부지에 2천775억원(국비 250억원 포함)을 들여 1만8천석 규모의 주공연장(5만9천889㎡), 1천100석의 보조공연장(3천351㎡) 등을 짓는 사업이다.

/김민욱·유은총기자 kmw@kyeongin.com



11일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에 대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한경 경기도 보건복지국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임철수기자 ppys@kyeongin.com

경기도 장애인 복지 '최하위'

의료비 지급·교육수준 평균미만...고용률은 '바다' 도, 행감서 논란되자 "몰랐다... 파악후 조치" 해명

경기도 장애인 복지 수준이 올해 전국 최하위권으로 조사됐지만 정작 도는 이같은 실정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한 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올해 전국 17개 광역단체의 장애인 복지 수준을 비교·분석한 결과, 도의 장애인 복지 수준은 부산·전남·경북과 더불어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자리 성격이 저조해 민간부 문은 물론, 공공부문에서도 장애인 고용률이 전국 지자체중 바닥 수준 이었다. 각종 복지서비스 지원 정도 와 의료비·활동지원비 지급규모도 평균치를 넘지 못했다. 장애인에 대 한 교육 수준 역시 전국 평균에 미치 지 못했다. 특수 교육 담당 교원수와 학습수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충분 한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지만, 정작 특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학생중 실 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수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등교육을 이수한후 진 학을 하거나 취직을 하는 학생수도 최하위권이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논란이 되자 도는 "솔직히 잘 몰랐다. 파악해서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보건복지 위 김광성(새정치·비례) 의원은 "장 애인 정책에 대한 도의 태도가 인일 하다"고 비판했다.

BTL 방식(임대형 민간투자방식) 을 통해 300병상 규모로 신축하기로 가닥을 잡고 있는 도의료원 이전병 원 역시 쟁점이 됐다. 김승남(새·양 평1)·남중섭(새정치·용인6) 의원 등 은 "300병상 규모로 지을 필요가 있 는지, 적자를 키우는 결과만 초래하 는게 아닌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연천·가평처럼 이같은 인프라가 부 족한 곳은 어떻게 할지 대안도 함께 모색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이승철(새·수원5) 의원은 도 공무원들의 지나친 외부강의(경인일 보 10월21일자 1면 보도)에 우려를 표했고, 류재구(새정치·부천5) 의원 은 도가 3년간 노숙인 관리를 위해 1 명당 1천6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투입하고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 했다고 질타했다.

/김기정기자 kanggi@kyeongin.com



중증 응급환자 구명 '골든타임존' 시행

30개소 질환별 의료기관 운영

경기도는 공휴일·야간 등 의료취 약시간에 중증 응급환자가 신속히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골든타 임존 사업'을 시행중이라고 11일 밝 혔다. 이 사업은 골든타임(외상환자 의 생존율과 치료 효과를 높이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초기 시간) 을 단축하는 게 핵심이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 터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중증응급

환자의 28.8%는 최소한 번 이상 전 원(병원간 이송)을 경험한다. 한 번 병원을 옮길 경우 4시간, 두 번 이상 이면 응급수술과 시술, 집중치료 등 최종 치료를 최고 14시간이나 지연 시킨다.

도는 이같은 폐단을 줄이기 위해 도 전역을 4개 권역으로 묶어 응급실 을 갖춘 의료기관 60곳 가운데 절반 인 30개소를 질환별 당직의료기관으 로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대상 질환은 응급질환 중 중증에

해당해 빠른 수술과 시술이 필요하 거나 의료수가가 낮아 의료기관이 치료 를 꺼리는 뇌실질출혈이나 장종창 등 11개 질환이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나 재난·응급의료상황실(02-6362-3455 또는 129)에 전화하면 환자를 치 료할 수 있는 적합한 병원을 안내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도민이 안전하 고 신속하게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지속 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진기자 ikj@kyeongin.com

GGGI 국제컨퍼런스 개최

'창조경제·녹색성장 연계'... 19일 송도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는 오는 19일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쉐라톤 인천 호텔에서 '창조경제와 녹색성장의 연계'를 주제로 콘퍼런 스를 연다. GGGI(Global Green Growth Institute)는 우리나라가 주 도해 만든 첫 국제기구로, 현재 24개 국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콘퍼런스 주요 의제는 ▲최첨단 녹색기술의 과제 진단과 해결 방안 ▲녹색금융 분야의 수요와 공급 부 조화 현상 해결 방안 ▲녹색성장 부 야 혁신적 투자 모델 모색 ▲녹색성

장과 창조경제의 시너지 극대화 방 안 등이다. 저녁 세션에서는 운병세 외교부 장관이 환영사를, 라젠드라 파차우리 유엔 정부간기후변화위원 회(IPCC) 의장이 기조연설을 한다.

이번 행사에는 수실로 발방 유도요 노(GGGI 의장 내정자) 전 인도네시 아 대통령, 윤성규 환경부 장관, 메리 로빈슨(전 아일랜드 대통령) UN 기 후변화 특보, 유정복 인천시장, 신야 수렌 오윤 몽골 환경부 장관, 루이 포 송 세계물위원회 회장 등 국제 주요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행사 전날인 18일에는 수실 로 발방 유도요노 전 인도네시아 대 통령의 GGGI 의장직 임명 연설을 시작으로 GGGI 총회가 열린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天地風水地理研究院
등록번호: 111-50-64162

전국
포지관리공사

화장, 시초(복원), 이장, 자연장, 평장, 수목장, 조경, 석물, 가묘, 묘지감정, 수택

동수적 풍운자리 봐 드립니다

주택지, 발강, 펜션, 가든, 모텔, 콘도, 사옥, 병원, 요양원, 학원, 학교, 사찰터, 밭자리, 축사장 등

문의: **011-757-7890**
02-778-0707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 인터넷 검색창에 **정치후원금** 을 쳐주세요
문의전화 : 02-523-6483

희망의 정치 원하세요? 후원하세요!

-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서 기부
 - 후원회 후원금 및 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 모두 가능
 - 계좌이체,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휴대폰 결제 가능
- 스마트청구서(스마트폰 정치후원시스템)에서 기부
- 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 계좌로 직접 이체

**정치후원금 기부시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기부시 초과액의 15%~25%를 세액공제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기부할 수 있습니다.

공명선거 홍보대사
MBC 아나운서
김소영

국민의
후원이 모여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듭니다

화성산단내 규제 개선 '공장부지 확보'

<손톱 밑 가시뽑기>

민관합동추진단 한달간 21건 발굴
과중한 도로면적 비율 하향 조정
공장용지 활용폭 넓어져 애로 해소

삼성전자가 입주한 화성일반산업단지의 도로면적 허용 기준이 완화돼 공장용지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늘어나게 됐다.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지난 한달간 소상공인과 기업 등이 겪는 '손톱 밑 가시' 규제 총 21건을 발굴해 개선했다고 11일 밝혔다.

산업단지는 통상 규모에 따라 전체 면적 중 일정 비율의 도로 확보율을 의무로 지켜야 하는데, 화성일반산업단의 경우 전체 면적에 대해 8% 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야 했다.

하지만 산단내 공장 면적에 비해 도로 면적 비율이 과중한데다 삼성전자가 한 곳만 입주해 사실상 해당 도로 역시 단일 기업이 사용하는 내부도로로 쓰이는 데도 도로관련 변경 절차에만 6개월 이상의 인·허가 기간이 소요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도로면적 비율을 8%에서 4%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화성산단 개발·실시계획을 변경했다.

이로써 화성산단은 의무로 확보해야 하는 도로 이외의 내부도로가 심의 대상에서 제외돼 공장용지로의 활용 폭이 넓어지는 등 운영상 애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추진단은 이를 포함해 '축적판매 제조·가공식품의 배달 판매 허용'과 '중소기업 졸업기업에 대한 병역특례 지정 보장' 등 기업 관련 규제 10건, 소상공인 관련 규제 6건, 글로벌 규제 5건 등 21건의 손톱 밑 가시를 뽑았다. 추진단 관계자는 "현재까지 발굴한 기업현장 애로 관련 규제는 500건도 넘는 데다"며 "법령 정비 등 개선이 완료되는 대로 매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일반산업단은 사업비 1천500억원이 투입돼 총면적 96만3천㎡ 규모로 조성된다. /신선미기자 ssnmi@kyeongin.com



커브드 TV 국내 누적 판매량 5만대 돌파

삼성전자 커브드(곡면) TV의 국내 누적 판매량이 5만대를 넘어섰다. 삼성전자는 올해 2월 커브드 UHD TV를 세계 최초로 국내 시장에 내놓은 이후 5개월여 만에 7월에 누적 판매 1만대를 넘었고 지난 8월부터 10월 사이에는 한 달에 1만대 이상 팔려 누적 판매량 5만대를 돌파했다고 11일 밝혔다. 커브드 TV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은 139.7cm 보급형 UHD TV로 월 판매량 3천대를 넘었다. 삼성전자는 커브드 TV 출시 초기에는 고가의 프리미엄 모델로 한정해 시장에 내놓았으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 7월 보급형 커브드 UHD 모델까지 라인업을 확대했고 풀HD급 커브드 TV도 연말이 선보였다. 삼성전자는 "커브드 TV 출시 이후 5개월 걸려던 1만대 판매가 최근에는 한 달 만에 넘어선다는 점에 비춰 커브드 TV가 차세대 TV로 확실히 자리매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하도급 대금 상습체불업체 명단 공개

하도급 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업체 명단이 공개된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상습 체불업체 명단 공표, 저가낙찰공사 공사대금 발주자 직접 지급, 하도급 계약정보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명단 공개 대상은 최근 3년간 2회 이상 대금을 체불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 중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국

토부 홈페이지 또는 건설산업정보망 등에 3년간 공표하게 된다. 상습체불업체로 명단이 공표되면 해당 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에도 반영돼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상습 체불업체의 명단이 공개되면 건설업체들이 상습체불업체와 계약을 기피하게 돼 대금 체불이 사전에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공사예정금액의 낙찰가율이 70% 미만의 공공공사는 하도급자가 요청

할 경우 발주자는 의무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저가 낙찰공사는 원도급 업체의 하도급 대금 체불 우려가 높았다. 국토부는 "지금까지는 공공공사의 원도급 계약에 대한 정보만 공개가 되고 하도급 계약 정보는 계약 당사자들끼리만 공유돼 원도급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저가계약, 이중계약 등을 하도급자에게 강요하는 것을 방지하기 어려웠던 환경이었다"며 "하도급업체 선정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이라고 밝혔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5년만에 흑자... 저축銀 부활 신호탄?

전국 86곳서 190억 당기순이익
지난 2011년 대규모 부실사태에 빠졌던 저축은행이 5년만에 분기 흑자를 내며 부활 조짐을 보이고 있다. 11일 저축은행업계와 금융감독원에 따

르면 올해 회계연도 1분기(7~9월)에 전국 86개 저축은행이 19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저축은행이 분기 흑자를 낸 것은 지난 2009년 2분기(10~12월)이후 5년만이다. 흑자를 기록한 저축은행 숫자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곳이 늘어난 59개사다. 저축은행이 흑자 구조로 돌아서고 있는 것은 각종 경영개선 수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9월말 현재 총자산은 37조1천억 원으로 지난해 6월말보다 4천억원 증가했다. 연체율은 17.4%로 6월말보다 0.2%p 하락했다. 부실 PF 사업장 매각 등으로 기업 대출의 연체율(21.8%)이 0.1%p 떨어졌고, 개

인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의 연체율(10.4%)도 0.4%p 하락했다. 국내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최근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점포 확대 규제 완화와 신용카드 발급 및 방카슈랑스 취급 등 금융중개 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있어서 저축은행의 경영안정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희기자 jhkim@kyeongin.com

잡쌀떡보다 힐링... 수능선물 新풍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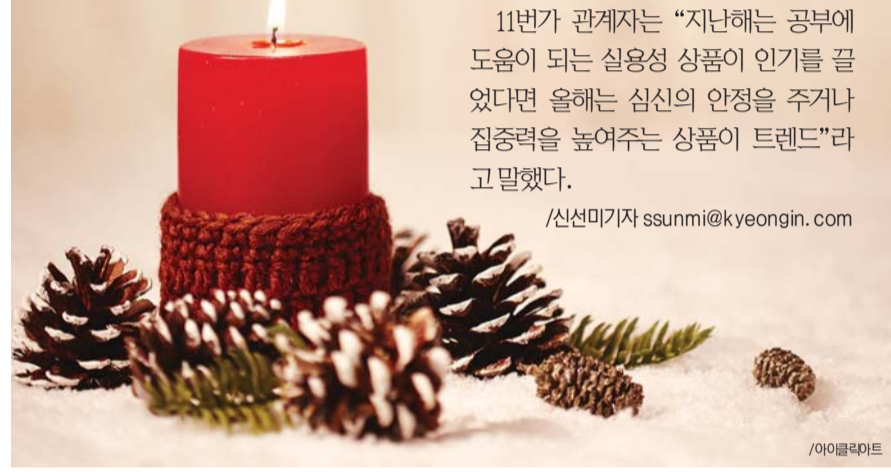
향초·아로마용품 긴장감 완화
보은도사막·햇팩 필수 아이템

직장인 김모(26)씨는 고3 수험생인 막내 동생에게 줄 '수능 선물'로 아로마향초를 구매했다. 김씨가 수험생이던 시절만 해도 잡쌀떡, 초콜릿, 엿, 휴지, 포크 등 주로 합격이나 응원의 의미를 담은 선물이 인기였지만, 요즘은 긴장감과 불안함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힐링용' 선물이 대세라는 말을 주변 지인들로부터 들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요즘은 찜질팩이나 아로마용품 등 실용적이면서도 긴장을 풀어주는 선물이 인기라고 하더라"며 "잘 풀고 잘 찍고 철썩 합격하라는 등의 의미를 담은 선물들을 주고받던 건 옛날 얘기"라고 말했다. 수험생들 사이에서 힐링용 제품들이 필수품으로 자리를 잡

다보니 관련업계에서 수능을 앞두고 내놓은 제품들이 인기를 누리고 있다. 양키캔들은 최근 수능을 앞둔 시점에 향초 수요가 폭발하는 점에 착안해 아예 올해 처음으로 수험생을 위한 선물세트 3종을 출시했다. 집중력 향상과 스트레스 해소, 컨디션 조절을 위한 숙면 유도용 등의 기능이 있는 향초를 수능 당일까지 한정 판매하고 있으며 수험생 세트가 매출 신장에도 기여하고 있다는게 업체 측 설명이다. 오픈마켓 11번가도 '마사지 솔트', 스마트폰 앱과 연동해 숙면유도 음약을 들을 수 있는 '꿀전도 베게', '산소생성기' 등이 수능을 앞두고 최대 인기 제품이라고 밝혔다. 특히 소음이 없고 고사장에 반입이 가능한 특정 브랜드의 일명 '수능시계'와 보은도사막, 햇팩 등도 필수 준비물이 되면서 덩달아 인기다.

11번가 관계자는 "지난해는 공부에 도움이 되는 실용성 상품이 인기를 끌었다면 올해는 심신의 안정을 주거나 집중력을 높여주는 상품이 트렌드"라고 말했다. /신선미기자 ssnmi@kyeongin.com



대출사기는 인천, 피싱사기는 서울 '최다'

타인의 정보를 빼내 돈을 가로채는 피싱사기는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출사기는 인천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건당 피해액은 피싱사기 1천130만원, 대출사기 450만원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011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피해구제 신청이 들어온 피싱사기(7만859건)와 2012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대출사기(1만3천915건)를 분석한 결과를 11일 내놓았다. 피싱사기 피해는 서울이 258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는 대전(195건), 경기(175건), 제주(174건) 순으로 나타났다. 피싱사기 피해는 30대가 전체의 28.2%

로 가장 많았다. 성별로는 여성이 전체 피싱사기 피해 중 54.3%로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파밍·피싱사이드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67.5%)를 방지한 경우가 많았고, 보이스피싱은 개인정보 유출방지(41.2%)나 지인(17.9%), 우편물(16.2%) 등을 방지하거나 사칭했다. 대출사기는 인천에서 177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충남(153건), 강원(152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대출사기범들은 전화광고(68.1%)와 문자메시지(28.5%)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희기자 jhkim@kyeongin.com

청경향 세상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왕지사 평생건강 With You

이전안내
11월 17일(월), 오전동으로 이전
보다 나은 고객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35번지 우진빌딩 (루이까스텔 건물 4~5층) ▼

※ 찾아오시는 길
▷ 버스 : 가우단지입구 정류장 441, 502, 301, 777, 64, 65, 1-2, 10, 5, 5-1, 60-1, 300, 900
포도원·현대아파트 정류장 441, 502, 301, 777, 64, 65, 1-2, 10, 5, 5-1, 60-1, 300, 900, 22
▷ 마을버스 : 6-1, 8

h-well 국민건강보험 의왕지사

Aone MOTEL

25개 객실의 현명한 투자전략!
에이원 모텔

미래가치를 생각하시고 아름다운 곳에서 직접 운영 하실분을 모십니다

☑ 태안군 도자기 박물관 예정 부지 옆 ☑ 신진도와 안흥항 남쪽 연륙교 결정
월수입 800만원. 8억원 매매(조정가능). 주인 직접 운영중

궁금한 점은 전화주세요. **010-9156-8800**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 신진대교길 75-11(신진도리 441번지)

글·로·벌·리·더·청·소·년·아·카·데·미·와·함·께·알·찬·겨·울·방·학·을

제18기 글로벌리더 청소년 아카데미



2015 중국문화학교

中國文化學校

"연수단 모집"

2015. 1. 5. (월) ~ 2015. 1. 17. (토) [12박13일]

경기·인천지역 중·고등학교 학생 누구나 지원하세요!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과 경인일보사가 주관하고 수원시청소년센터와 인민일보 해외판 한국대표처에서 주최하는 "글로벌리더 청소년 아카데미 '2015 중국문화학교'"에 참가할 미래의 글로벌리더들을 모집합니다. 국내 최고의 프로그램으로 정평받고 있는 경인일보의 해외문화 체험 및 어학연수는 수준별 중국어연수는 물론 역사유적지를 비롯한 현지 관광지 및 재래시장 방문, 청소년들과의 만남 등 보다 알찬 내용으로 꾸몄습니다. 경기·인천지역 남녀 중·고등학생까지 참가가 가능한 중국 문화체험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접수기간 : 11월 20일(목)

교육 내용

- 북경, 정주, 낙양, 개봉, 상해 등 중국주요도시 체험학습
- 중국어 수업 / 중국노래 배우기 / 노래공연 및 독후감 발표
- 명사초청 글로벌 리더 특강

참가비

- 197만원(연수비용, 왕복항공료, 숙식비, 교재대, 관광지 입장료 일체비용 / 비자발급비용 별도)
- *수원시 학생은 청소년문화센터에서 1인당 85만원씩 지원

연수 장소

중국 하남성 정주시 정주국제학교

면접

12월 11일(목) 오후 5시, 경인일보 3층 회의실

합격자 발표

12월 12일(금)

오리엔 테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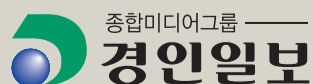
12월 19일(금) 참가자 오리엔테이션 (수원청소년문화센터 2층 은하수홀)

신청안내 및 연수일정표 등의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청소년문화센터 홈페이지 www.sycc.or.kr를 참조하시고, 접수는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 enffl888@naver.com 또는 팩스 031-218-0419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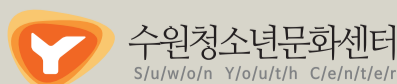


문의: 경인일보 사업국 031-231-5500 수원청소년문화센터 031-218-0415 인민일보해외판한국대표처 031-546-8813

주최



주관



목소리 낭랑한 할머니·컴퓨터 교육가 엄마·방송기자 꿈 딸

“3代 하나되어 동영상 만들어요”

남동구 김경애·김로사·채지효 가족 시청자미디어센터 교육 수료 '화제'



컴퓨터 활용 교육 전문가인 엄마는 어느 날 가족에게 미디어 교육 수강을 제안했다. 장래 방송 기자가 꿈인 초등학생 딸, 시와 소설을 소리 내어 읽는 목소리가 좋은 60대 할머니가 함께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동영상 제작 교육을 받으려 어떤겠냐고 했다. 할머니가 교육을 잘 못따라가지 않을까 걱정된 엄마도 수강신청서를 냈다. 한 집에 사는 3대는 이렇게 미디어 교육을 시작해 기초과정, 고급과정, 심화과정 등 3단계를 모두 수료하고 현재 미디어 제작단에 속해 있다.

할머니는 다음 촬영 장소를 선정하는 일을 담당했다. 3대가 함께 들은 교육은 가족을 변화시켰다. 할머니는 아나운싱 수업을 들으며 “내가 낭독을 굉장히 한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초등학생 딸은 현지 방송국 보도국장에게 생생한 실무 교육을 받고 보도국장을 인터뷰하는 기회를 얻었다. 엄마는 “미디어 교육을 통해 우리 셋이 배운 것도 많고, 대화할 수 있는 주제가 생겼다”고 했다.

가르쳐주는 게 좋았다고 지효네 가족은 입을 모았다. 할머니 김경애씨는 “앞으로 녹음 잘 해서 UCC를 올리고 싶어요”라고 했다. 할머니는 소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대사를 수백번도 더 소리내어 읽었다고 한다. 채지효 양은 “할머니 특유의 옛날 목소리는 듣기에 참 좋다”며 책 읽는 할머니를 소재로 한 팟캐스트를 제작하고 싶다고 했다. 논현2동 주민센터, 인천노인종합복지관에서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컴퓨터를 가르치는 김로사씨는 “어르신들이 미디어센터에서 영상 제작 기술을 익힐 것을 권장하고 싶다”고 말했다.

화제의 주인공은 인천 남동구에 사는 김경애(65)씨, 김로사(40)씨, 채지효(11)양 가족이다. 이들 3대는 지난 9월 ‘기초과정-동영상제작 2기’에서 시작해 ‘고급과정-시민기자’, ‘심화과정-동영상 촬영’을 수료했다. 김경애씨는 시청자미디어센터의 교육이 어땠는 물음에 “너무 좋아요”라는 말을 반복하고 “제 나이에 특별히 배우고 싶은 의욕도 안 나는데, 여기 오면 편한 마음”이라고 했다. 김경애씨는 가족들과는 따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동영상 제작’을 수강하면서 거의 매일 센터에 나오다시피 했다.

할머니, 엄마, 딸은 시청자미디어센터의 교육과 실습에 늘 동행했다. 지난 달 ‘월미공원 벚벚 체험’을 촬영하려 갔을 때 딸은 인터뷰를, 엄마는 촬영을,



재능대 금연성공학학생 111명에 장학금

인천재능대학교(총장·이기우)는 11일 금연 장학금 수여식과 평생 금연 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재능대는 금연에 성공한 111명의 학생에게 장학금 3천300만원을 지급했다. 재능대 학생 369명은 지난 4월부터 금연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이 중 30% 가량인 111명이 담배를 끊어 장학금을 받게 됐다. 재능대 관계자는 “교내 일부 흡연부스를 제외한 전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정해 학생들의 금연 실천에 총력을 쏟고 있다”며 “장학금 제도로 학생들의 금연 의지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강화속노랑고구마 출하협약·품평회

양도농협(조합장·김기석) 고구마 작목반은 11일 고구마작목반 공동선별장에서 농협 강서공판장, 농협 정과사업단, 인천하나로클럽 관계자와 출하 농업인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화속노랑고구마 출하협약회 및 품평회’를 개최했다. 양도농협의 속노랑 고구마는 당도가 높고 섬유질이 풍부해 고구마작목반은 강화 속노랑고구마로 3억 8천만원의 소득을 올리기도 했다. 양도농협은 올해도 고구마 작황이 좋아 작년대비 10%이상의 매출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웅진군·영흥화력 기상정보공유 협약

인천시 웅진군(군수·조윤길)과 한국남동발전(주) 영흥화력본부(본부장·손광식)는 영흥지역 기상정보 공유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주고받았다고 11일 밝혔다. 두 기관은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운영중인 기상정보시스템의 기상정보를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영흥면 진두선착장 입구에 전광판을 설치하기로 했다. 영흥화력본부 관계자는 “기상정보 전광판을 시범 운영하며 주민과 관광객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연말연시 '사랑의 연탄 배달'



롯데백화점 35주년행사 대신 나눔

창립 35주년을 맞은 롯데백화점이 창립 기념행사를 대신해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를 펼쳤다. 롯데백화점 인천점·부평점·중동점 임직원 50여명은 11일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에 거주하는 불우이웃에게 연탄을 배달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롯데백화점은 앞서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에 1억7천500만원 상당의 연탄 35만장을 기부하기도 했다. 롯데백화점 인천점 관계자는 “지역의 이웃을 위해 롯데백화점 고객들로 구성된 사뮈데봉사단 등과 함께 시설이 노후한 집을 리모델링해주는 프로젝트도 진행할 것이다”고 했다.



북부·서부교육지원청 봉사

인천북부교육지원청 직원들과 서부교육지원청 봉사동아리 ‘서부한우리회’ 회원들이 10일 인천연탄은행과 연계해 서구 석남동 일대 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연탄 2천장을 구입·배달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연탄나눔 행사에는 직원들의 자녀도 함께 참여해 직접 연탄을 실은 지게를 지고 언덕길을 지나며 이웃들에게 연탄을 전달했다. 자녀와 함께 참여한 한 직원은 “요즘 자녀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 없었는데 이번 연탄나눔 봉사를 통해 이웃사랑과 나눔을 전하는 뜻깊은 시간을 함께해서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사회물차운송협, 이웃사랑 성금 전달

인천광역시사회물차운송사업협회(이사장·심재선)는 11일 인천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사랑 성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개인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자 인천공동모금회 부회장으로 활동중인 심재선 이사장은 “추위된 날씨에 생계가 곤란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값지게 사용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이웃을 위한 나눔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계양구 '숲 가꾸기 1일 체험행사'

인천시 계양구(구청장·박형우)는 10일 효성동에서 ‘숲 가꾸기 1일 체험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 참가자들은 작전역에서부터 효성동 노인복지센터까지 1.5km 거리의 녹지대에 비료를 주고 주변 잡목목을 제거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도심 속 숲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심에서 주민들이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녹지를 넓히고, 숲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for the 33rd Jeongin Volunteer Award. It features a large image of a candle and firefighters. Text includes: '제33회 경인봉사대상 수상 후보자를 공모합니다', '경인일보가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에서 근무하는 일반 공무원, 교육자, 경찰·소방·군·우정공무원 등 분야별 모범 공무원과 주위의 귀감이 될 우수 농업인을 찾습니다. 올해로 33회째를 맞는 경인봉사대상은 지역의 숨은 일꾼을 발굴, 사기와 긍지를 높여주고 봉사의 참 뜻을 되새기게 위한 최고 권위의 상입니다. 우리 사회의 참일꾼들을 많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마감 2014년 11월 18일(화) 오후 6시까지', '행사개요' (Date: Dec 4, 2014; Location: Jeongin Ilbo 3rd Conference Room; Prize: 1 million KRW), '시상부문 및 추천기관' (Categories: Local Government, Education, Police, Fire, Military, Postal, etc.), '구비서류' (Application form, photo, certificate, etc.), '문의전화' (031)231-5511 / 032)861-3200.



내년 프로야구 1군에 진출하는 수원 kt위즈의 홈구장인 수원 kt위즈파크가 오는 12월 17일 준공식을 갖는다. 현재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인 kt위즈파크는 99.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팬과 거리 좁힌 구장, MLB 부럽지 않다

내달 17일 준공식 앞둔 '수원 kt위즈파크' 가보니

kt wiz
수원

'수원kt위즈 파크 위 용을 드러내다'. 11일 오전 수원 kt위즈파크를 찾았다. 경기장 안에는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었다. 경기장 외관 공정률은 99.9%였지만 아직 그라운드 공사와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중이다.

외야석에 올라서자 천연잔디가 깔려있는 경기장이 한 눈에 들어왔다. 위즈파크의 외야석은 잔디가 깔려있는 계단식이다. kt 관계자는 "외야에서 경기를 볼때 앞사람에게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설계돼 외야에서

도 경기를 재밌게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외야의 또다른 특징은 한국 야구장 최초로 설치된 스포츠펍(Pub)이다. 외야석 중앙에 위치해 있는 이곳에선 실내에서 펍을 즐기면서도 경기를 조망할 수도도록 했다. 스포츠펍은 일종의 실내 주점으로 관중들은 이곳에서 가벼운 맥주를 마시면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다.

1루 더그아웃에서 바라본 경기장은 아직까지 파울 라인 바깥쪽과 펜스 공사가 이어졌다. 하지만 선수들을 보다 가까워서 볼 수 있는 익사iting 존이 총 486석 마련됐고, 그라운드 좌·우측엔 kt위즈 조병현 감독이

파울펜스 두편 익사iting존 조성

외야 관람석 시야 방해도 개선

첫 설치 실내주점 스포츠펍 눈길

직접 요청한 불펜이 눈에 띄었다. 위즈파크는 후편 관람석도 특징이다. 경기가 가장 잘 보이는 이 곳은 보통 기록실, 전광판실, 심판실 등이 위치해 있었지만 위즈파크는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야구장처럼 팬들이 경기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조명은 플라즈마 라이트 시스템으로 눈부심을 최소화해 선수들이 야간 경기를 치

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었다. 총합은 동장내 1천129개의 주차면도 360면을 추가 증설해 내년에 있을 주차난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에서 2차 마무리 훈련에 열중하고 있는 kt 선수단은 11월27일 제주에서 복귀할 예정이며 12월초 위즈파크에서 국내 자율훈련을 계획중이다. 내부 인테리어 공사는 선수단이 들어오는 12월1일 끝날 예정이며 그라운드는 12월6일 마무리 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현재 리모델링 공사는 거의 다 완성됐다"면서 "12월17일 준공식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OK저축은행 유니폼 디자인 공모

2014~2015 V리그 1라운드에서 5승1패로 창단 후 첫 1위에 오른 안산 OK저축은행 행리스앤캐시 프로배구단이 유니폼 디자인 공모전을 진행하고 11일 밝혔다.

공모전에는 디자인을 전공하는 전국 대학생과 디자인 관련 종사자는 물론 일반인

도 참여할 수 있다. 응모 마감일은 12월 15일이다.

총상금은 3천400만원이며 일반인 부문 대상에 1천만원, 학생 부문 대상에 500만원의 상금을 각각 준다. 응모 방법 등은 배구단 홈페이지(www.oksavingsbankkrush-ncash.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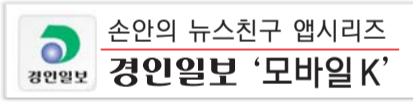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부천 하나외환 용병 해리스 영입

여자프로농구 부천 하나외환이 외국인 선수 엠버 해리스(26·194cm)를 영입했다. 하나외환은 전체 1순위 외국인 선수인 엘리사 토마스(22·185cm)가 지난 8일 구리 KDB생명과의 경기 도중 오른쪽 발목을 다쳐 전지 3주 진단을 받음에 따라 해리스를

약 1개월간 대체 선수로 기용하기로 했다. 해리스는 2012~2013 용인 삼성에서 뛰었으며 당시 평균 20점, 11.2리바운드의 성적을 냈다.

/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



KDB생명 동주여고 안혜지 1순위 지명

여자농구연맹 신인선수 선발회



여자 프로농구 구리 KDB생명이 포인트가드 안혜지(17·동주여고)를 지명했다.

KDB생명은 11일 서울 여의도동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5년 여자농구연맹 신인선수 선발회에서 1라운드 1순위 안혜지를 선택했다.

163cm의 단신인 안혜지는 예리한 패스,



11일 서울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5년 여자농구 신인선수 선발회에서 전체 1순위로 구리 KDB생명에 지명된 안혜지(부산 동주여고)가 안혜지 감독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KBL

국내 여고 최고 포인트가드 평가

세계·야 선수권 청소년대표 활약

신한銀 김연희·삼성 황승미 뽑아

안정된 드리블, 탁월한 공간 감각을 자랑하는 국내 여고 최고 포인트가드로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안혜지는 올해 17세 이하 세계선수권대회, 18세 이하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청소년 대표로 활약했다.

안혜지 KDB생명 감독은 "농구는 신장이 아니라 심장으로 한다. 안혜지가 키가 작지만 돌파력과 담력이 일품이다"라고 전했다. 그는 다음달 5일부터 시작되는 올 시즌 3라운드에 곧바로 안혜지를 기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2순위의 영예는 '특점기계'로 명성을 떨친 전지 3주 선발회 출신 지원자 22명 가운데 13명이 입단에 성공했다.

/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

고이 청주 국민은행으로부터 지명을 받았고, 부천 하나외환은 키 183cm의 골밑 요원인 이하은(18·성남 분당경영고)을 선택했다. 이하은은 큰 키에 스피드와 기술을 겸비한 포워드 겸 센터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천 신한은행은 3순위로 센터 김연희(선일여고), 용인 삼성은 4순위로 센터 황승미(청주여고)를 각각 골랐다.

1라운드 마지막 지명권을 획득한 춘천 우리은행은 과거 트레이드 계약에 따라 지명권을 KDB생명에 양도했다. KDB생명은 포워드 홍소리(수원여고)를 뽑았다.

이날 신인 선발회에선 지원자 22명 가운데 13명이 입단에 성공했다.

/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

창단 5년만에 불링 명문고 우뚝

화제의 팀 | 전국체전 금4·은1·동1 양주 백석고 불링부

양주 백석고 불링부가 제95회 전국체전에서 창단 5년만에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며 불링 명문고로 떠올랐다.

경기도 대표로 이번 체전에 참가한 백석고 불링부는 금 4개와 은 1개, 동 1개를 획득했다.

장려경(3년)과 김수경(2년)은 여자 5인조전에서 합작으로 금메달을 따냈고, 장려경은 2인조전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해 2관왕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김정태(2년)는 남자 3인조와 2인조전에서 각각 금·은메달을, 김지호(2년)는 남자 2인조전에서 동메달을 각각 목에 걸었다.

특히 지난 2010년에 창단한 백석고 불링부는 역대 체전 출전 사상 최고의 성적을 올리는 등 국내 불링의 신예 명문고임을 다시



한번 입증시켰다.

최영하 감독은 "물심 양면으로 지원해 준 학교와 양주시, 양주시의회 덕분에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며 "이번 성적을 바탕으로 내년 강원체전에서도 선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남한 노총각과 북한 꽃미녀의
예측불허 결혼일기

남남 남남 南男

북북 북북 北女

매주 금요일 밤 11시

박수홍 ♥ 박수애

양준혁 ♥ 김은아

박수홍

양준혁

박수애

김은아

11월 11일, 1·1·1·1 역사를 쓰다

<2011> <2012> <2013> <2014>



11일 오후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6차전 넥센 히어로즈-삼성 라이온즈 경기. 11대1로 우승한 삼성 선수들이 기뻐하고 있다. /스포츠

‘한국시리즈 제패’ 삼성, 프로야구 첫 4년 연속 통합우승

홈런 등 불붙은 타선 11점 뽑아

넥센 큰경기 경험부족 준우승

삼성 라이온즈가 한국 프로야구 사상 첫 4년 연속 통합 우승이라는 금자탑을 세웠다. 삼성은 11일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14 한국야구리그 세븐 프로야구 한국시리즈(7전 4선승제) 6차전에서 넥센 히어로즈를

11-1로 꺾었다. 2차전과 3차전에서 승리한 뒤 전날 5차전에서 9회말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던 삼성은 이날 승리로 시리즈 전적 4승2패를 마크하며 한국시리즈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이로써 삼성은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처음으로 4년 연속 통합 우승이라는 위업을 달

성했다. 반면 창단후 처음으로 한국시리즈에 진출한 넥센은 큰 무대에서 경기 부진을 드러내며 아쉽게 준우승에 만족해야만 했다. 삼성의 선발 투수 윤성환은 6이닝동안 89개의 공을 던지며 1실점으로 완벽에 가까운 투구를 펼쳤다. 윤성환은 안타는 3개만

을 허용했고 삼진 4개를 걸었다. 반면 넥센 선발 오재영은 2.1이닝동안 60개의 공을 던지며 볼넷 2개와 4실점(3자책)으로 무너졌다. 이날 경기에서 삼성은 그동안 침체됐던 타선이 폭발하며 승기를 잡았다. 최형우와 채태인이 각각 2타점을 만들어냈고 삼성 나

바로는 6회 왼쪽 담장을 넘기는 3점 홈런을 포함, 5타점을 때려내며 승부에 쐬기를 박았다. 넥센은 선발 투수 오재영의 실책과 더불어 유한준, 박병호, 강정호가 부진하며 득점 찬스에서 빈번히 점수를 내지 못하며 무너졌다. /이원근기자 hwg33@kyeongin.com

경기도생활체육회 지도자

응급처치법 일반과정 수료

경기도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생활체육 지도자 응급처치법 일반과정 교육’을 수료했다.

국민생활체육회가 주관하고 경기도생활체육회(회장·이원성)가 주관하는 이 교육 과정은 수원 경기도체육회관에서 10~11일 이틀간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갑작스러운 사고를 만났을 때 신속한 응급처치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사용, 상처·골절 처치 등 다양한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됐다. 또 수업에 참여한 지도자들은 12시간의 교육시간을 이수해 대한적십자사의 응급처치 수료증을 받게 됐다. /이원근기자 hwg33@kyeongin.com

스포츠 로고아웃

정현 ATP챌린저단식 2회전 진출

정현(180위·수원 삼일공고)이 남자프로테니스(ATP) 게이오 챌린저대회(총상금 5만 달러) 단식 2회전에 올랐다. 정현은 11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대회 이틀째 단식 본선 1회전에서 세키구치 슈이치(459위·일본)를 2-0(6-0 6-0)으로 완파했다. 인천 아시안게임 남자복식 금메달리스트 정현은 조던 톱스(270위·호주)와 8강 진출을 다룬다. /이원근기자 hwg33@kyeongin.com

창단 20돌 수원삼성 명예기자 모집

내년 시즌 창단 20주년을 맞는 수원삼성 이 12일부터 2015 블루윙스미디어 명예기자단을 모집한다. 취재와 중계, 그리고 디자인 등 3개 분야에서 활동할 명예기자단은 내년 시즌 팬들과 구단 간의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블루윙스미디어는 지난해부터 활동을 시작했으며 구단 홈페이지와 SNS의 각종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세부 사항은 구단 홈페이지(www.bluewings.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모집 마감은 21일 까지다. /이원근기자 hwg33@kyeongin.com

경기대 씨름을 두번째 모래판 포효

회장기이어 3년만에 최강전 정상

‘대학씨름 최강팀’ 경기대가 2014 전국 대학장씨름 최강전에서 3년만에 정상에 올랐다. 김준태 부장, 홍상태 감독이 이끄는 경기대는 11일 경북 김천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단체전 결승전(7전4선승제)에서 경남대를 전전끝에 4-3으로 물리쳤다. 1 사진 이로써 경기대는 지난 2011년 대회 우승 이후 3년만에 우승컵을 들어올렸고, 올해는 회장기대회 우승에 이어 2번째 대회를 석권했다.

반면, 지난 대회 우승팀 경남대는 2연패를 노렸지만 막판 위기를 넘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다. 경기대는 매번 결승 문턱에서 좌절을 맛



봤지만 이번 대회만큼은 달랐다. 8강에서 울산대를, 4강에서 용인대를 차례로 누른 경기대는 결승에서 작년 우승팀

경남대를 만났다. 경기대는 첫째판(경장급·75kg 이하)에서 박권익이 잡채기와 발다리로 상대 박종길

을 가볍게 제압했지만, 둘째판(소장급·80kg 이하)에서 양진영이 경남대 이만수에 1-2로 저 동점을 허용했다. 경기대는 셋째판(중장급·85kg 이하)에서 이정훈이 안다리와 들배지기로 상대 김원호를 무너트린 뒤 넷째판(용장급·90kg 이하)에서 김기선이 밀어치기와 판독승으로 이태형을 제압, 3-1로 점수차를 벌려 승기를 잡는 듯했지만, 다섯째판(용사급·95kg 이하)과 여섯째판(역사급·110kg 이하)에서 박준욱과 남성운이 잇따라 상대에게 저 3-3 동점을 허용,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경기대는 장사급(150kg 이하)의 임진원이 있었다. 임진원은 경남대 강규식을 상대로 밀어치기로 잇따라 상대를 모래판에 눕혀 우승의 마침표를 찍었다. /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

여자핸드볼 최강 인천시청

드래프트 1R 송지는 선택

한국 여자핸드볼 전국 최강의 실력을 자랑하는 인천시청이 2015 여자 실업핸드볼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에서 송지은(의정부 여고)을 선택했다. 인천시청은 11일 서울 송파구 SK핸드볼 경기장에서 열린 드래프트 행사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김성은(인천비즈니스고)은 2라운드에서 연고팀인 인천시청의 부름을 받았다. 또 인천 고교 선수 중에는 강경민(인천비즈니스고)이 전체 2순위로 광주도 시공사의 지명을 받았고, 송지영(인천비즈니스고)은 서울시청에 동지를 들었다. 올해 고교 경기에서 평균 12.7골을 넣은 기대주 최지현(인천여고)도 부산시청관리공단에서 지명됐다. 여자핸드볼 간판스타인 ‘류은희’(인천시청)를 잇는 재목으로 기대를 받고 있는 박준희(천안공고)는 전체 1순위로 부산시청관리공단 유니폼을 입게 됐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

MLB 낮은 포스팅 금액에 김광현 ‘고민’

SK 와이번스 결정 따르기로



‘자존심이나, 꿈의 무대나.’ 프로야구 인선 SK와 이번스 ‘에이스’ 김광현(26)의 미국 메이저리그(MLB) 도전이 시작부터 커다란 암초를 만났다. SK는 김광현 영입을 희망한 MLB 구단의 포스팅 최고 금액이 기대보다 낮아 크게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오늘(11일) 오전 미국 메이저리그 사무국으로부터 김광현에 대한 포스팅 결과(최고 응찰액, 구단 미통보)를 전달받고 이를 소속 구단인 SK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SK는 이날 포스팅 금액을 확인한 뒤 임원진 등이 회의를 가졌지만 기대보다 낮은

포스팅 금액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메이저리그 진출을 간절히 희망했던 김광현은 포스팅 금액을 통보받은 뒤 이렇다할 입찰 없이 구단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SK는 14일 오후 6시까지 포스팅 금액을 수용할지 말지를 정해 KBO에 통보하게 된다. 포스팅 시스템은 MLB 구단이 비공개 입찰을 거쳐 교섭권을 얻는 제도로 김광현에게 리브콜을 보낸 구단이 어디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SK는 단지 포스팅 최고 응찰액을 통보받아 합당한 대우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만약 SK가 응찰액을 수용하면 김광현은 교섭권을 얻은 해당 구단과 한 달 동안 연봉 협상에 들어간다. SK 관계자는 “오늘중으로 입장을 정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

현대건설, KGC인삼공사에 ‘홈패배 설욕’ 2위로

세트 3-0승... 폴리 맹활약



수원 현대건설이 대전 KGC인삼공사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시즌 첫 대결에서 당한 패배를 설욕했다. 현대건설은 11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2014~2015 NH농협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원정경기에서 인삼공사를 세트스코어 3-0(28-26 25-18 25-20)으로 물리쳤다. 현대건설은 지난 2일 수원에서 치른 홈경기에서 인삼공사에 1-3으로 졌지만 이날 깨끗하게 설욕하며 2라운드를 기분 좋게 시작했다. 1라운드에서 여자부 최우수선수(MVP)로 뽑힌 현대건설 폴리는 이날 60%의 공격 성공률을 기록하며 26득점을 올려 팀의 승리를 도왔다. 이날 승리로 현대건설은 4승2패 승점 11

을 기록해 선두 흥국생명(4승1패)과 승점은 같지만 세트득실률에서 밀려 2위에 위치했다. 현대건설은 첫 세트에서 26-26 듀스 상황에서 인삼공사 조이스의 실책과 양효진의 블로킹으로 28점을 선점하며 1세트를 따냈다. 분위기를 가져온 현대건설은 2세트에서도 선전했다. 폴리가 9점, 양효진이 6점을 올렸고 김세영의 블로킹도 가세, 2세트도 가져왔다. 승기를 잡은 현대건설은 3세트에서도 전의를 잃은 인삼공사를 향해 8점차까지 벌리며 승리했다. /이원근기자 hwg33@kyeongin.com

OK저축은행 시몬·현대건설 폴리 1R MVP 선정

안산 OK저축은행 시몬과 수원 현대건설 폴리 1라운드 최우수선수(MVP)에 선

정됐다. 한국배구연맹은 11일 NH농협 2014~2015 V리그 1라운드 MVP 기자단 투

표에서 안산 OK저축은행 시몬이 2표 중 총 26표를 얻어 MVP에 뽑혔다고 밝혔다. 지난해 1라운드 MVP였던 삼성화재 레오와 지난해 신인상을 받은 전광인은 각각 1표씩을 받았다. /이원근기자 hwg33@kyeongin.com

인천지역암센터와 함께 알아보는 **비만과 암**

>상< 대장암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다. 고혈압과 당뇨는 물론 각종 암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대장암과 유방암은 비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학계에 보고돼 있다. 인천의 비만율은 25.8%로 전국 6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다. 이렇게 비만율은 높은 반면 인천 시민들의 국가암검진 수검률은 전국 평균 36.83%에도 못 미치는 35.65% 수준에 그치고 있다.

경인일보는 인천 시민들의 암 예방과 치료 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인천지역암센터와 함께 2차례에 걸쳐 비만과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대장암과 유방암에 대해 알아보고 예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 편집자 주



점점 불러오는 배 슬슬 다가오는 암

동물성지방 과다 섭취·운동부족 등 원인
복부 비만일때 발생 위험 1.5~3.7배 증가
증세 놓치기쉬워 검진 통한 조기발견 중요
금연·금주 등 생활습관 개선시 예방 가능

그라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아이클라아트

■ 비만 환자의 경계대상 1호 대장암
최근 70대 노인이 부풀어 오른 배를 움켜 쥐고 기천대 길병원 인천지역암센터 백정흠 교수를 찾아왔다. 가족의 부족을 받아야 할 만큼 상태가 심각했는데, 환자는 수개월 전부터 변비가 심해지고 항문에서 피가 나왔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약국에서 산 약만 복용해 왔다고 했다. 시간이 지나자 배 통증이 더 심해졌고 복부가 점점 부풀어 오르더니 참을 수 없을 만큼의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은 것이다. 환자는 폐쇄성 허부직장암으로 진단받았고 곧바로 응급 수술을 진행했다.

인 건강진단을 받아 조기에 이런 것들을 발견했다더라면 간단한 수술을 통해 완치할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대장암의 주요 원인은 포화 지방산인 동물성 지방의 과다 섭취와 과도한 열량 섭취, 운동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육류 중에서도 붉은색을 띤 고기를 많이 먹으면 간에서 콜레스테롤과 담즙산이 많이 분비되는데, 대장 내 세균들이 담즙산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독성대사산물을 만들고 이것이 대장세포를 파괴시켜 암세포가 자라기 쉬운 환경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복부 비만일 경우 대장암 발생 위험이 1.5~3.7배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대장암의 약 5%는 유전성으로 분류되며 15%는

가족력을 갖는다. 또한 직계 가족 중 대장암 환자가 있는 경우 발생 위험도는 2~8배 증가한다.
■ 대장암 증상과 치료
대장암은 위와 같은 상부 소화기관과 달리 증세가 늦게 나타나며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단순 변비나 치질로 오인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우선 조기(1~2기)에 발견해 수술만 하면 완치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건강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에는 절개를 하지 않고 배에 작은 구멍을 내어 수술하는 복강경 대장암 수술도 보편화되고 있다. 복벽이나 방광, 요관 등 주변 장기로 전이되지 않은 경우 복강경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 수술은 환자의 빠른 회복은 물론 통증의 감소, 수술 후 입원기간 단축, 큰 흉터를 예방하는 미용적 효과 등 일석이조의 장점이 있다.
대장암은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방 가능한 병이다. 금연과 금주, 규칙적인 운동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섭취해 대장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이 예방법이다.
대장암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국가 암검진 프로그램은 만 50세 이상이면 1년 간격으로 분변잠혈검사를 하고,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 대장내시경검사 또는 대장이중조영검사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김명희기자 boq79@kyeongin.com

1 아침식사는 '반드시' 2 영양소 섭취도 도움 3 당분·카페인 피해야 4 배 조금 고프 상태로

수능 당일 최상의 컨디션 유지 4가지 건강정보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하루 남았다. 수험생들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학습내용을 총정리하는 것보다 내일 수능시험장에서 최고의 지적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수능 당일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4가지 건강정보를 전한다.
첫째, 수능 당일 아침식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 아침식사는 위장을 보호하며 수능의 언어영역이 시작되는 오전시간에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렇지만 과식과 탄수화물에 편중된 식사는 도리어 소화불량을 일으키는 등 집중력을 깨는 '독'이 된다. 단백질은 비롯한 각종 영양소가 고르게 함유된 식사를 추천한다. 식사는 평소 즐겨 먹는 식단으로 하며 밤이 부담스럽다면 소화기 빠른 죽이 좋다.
둘째, 두뇌 회전과 집중력을 높이는 영양소가 함유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뇌에 좋은 영양소로는 레시틴, 비타민 B군 등이 있으며 레시틴은 우유, 달걀, 두부, 호두, 땅 등에 많이 들어있다. 비타민 B군은 소고기, 돼지고기, 콩, 잡곡, 현미 등에 풍부하다. 또 시험을 앞둔 불안한 신경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칼

슘은 우유나 멸치 등에 많이 포함돼 있다. 스트레스 해소에는 비타민C가 많이 든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는 것이 좋다. 또 9시간 동안 시험지와 맞서야 하는 수험생들의 눈 건강을 위해 비타민A가 풍부한 당근, 케일 등 녹황색 채소를 섭취하자. 결명자, 구기자차도 눈의 피로 회복에 효과가 좋다.
셋째, 과도한 당분, 카페인 등 인스턴트 식품 섭취를 피하길 바란다. 과도한 당분은 신경과민 및 스트레스를 일으킨다. 특히 인공첨가물은 뇌 기능을 떨어뜨린다. 커피, 홍차, 콜라 등 카페인이 많이 든 음식은 뇌 중추 신경을 교란시키므로 시험 당일 음료 섭취시 과일주스 또는 카페인 없는 차류를 마시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시험을 앞둔 상황에서 식사를 가볍게 하는 것이 좋다. 배가 조금 고프게 할 때 대뇌피질을 자극해 뇌세포의 활동을 활성화시켜 학습이나 기억,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포만감이 들 정도의 식사를 피하고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먹는 것이 좋은 방지와 시험 당일 컨디션에 큰 도움이 된다.
다음달/한국건강증진개발원
/유은총기자 yooec86@kyeongin.com

"20~30대 몸무게 폭증, 혈관질환 위험성 높여" 분당서울대병원 임수 교수·영양학자 세계 첫 입증



20~30대 젊은 시절의 몸무게 폭증이 심혈관질환 위험성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분당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임수(사진) 교수와 영국 글래스고우 심혈관센터 사타 교수 연구진은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분당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를 내원한 1천724명의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20대 때의 체중, 일생 최대 체중 및 당시 나이, 당뇨병 진단 당시 체중과 나이를 조사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연구결과 20세 때 체중이 많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그 증가속도가 빠를수록 심혈관질환의 위험성이 높아졌다.
20세 때 체중 증가속도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눈 보면 1년에 1.3kg씩 증가해 증가속도가 가장 빠른 그룹에서는 50% 이상 관상동맥이 좁아진 유병률이 14.4%로, 증가

속도가 가장 느린 그룹(1년에 0.15kg씩 증가)의 9.5%보다 높았다. 또 같은 조건에서 두 개 이상의 심혈관질환을 동반한 경우도 10.2%와 4.7%로 큰 차이를 보였다.
심혈관질환 발생과 직결되는 동맥경화반은 체중 증가속도가 빠른 사람의 24.3%에서 동맥경화성 플라크(찌꺼기)가 존재한 반면, 체중 증가속도가 느린 사람의 경우는 14.9%로 10%포인트의 큰 차이를 나타냈다.
임수 교수는 "특정 시기의 체중 증가속도가 당뇨병 진단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세계최초로 입증한 결과"라며 "청소년시기부터 고지방, 고칼로리로 대표되는 서구화 식습관을 줄이고, 신체 활동량을 증가시켜 20~30대에 체중이 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당뇨병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임상당뇨병학회(Diabetes Care) 2014년 최근호에 게재됐다.
성남/김규식·김성주기자 siggie@kyeongin.com

www.꽃다지.com

소중한 내 가족을 위한 건강선물

지리산 흰민들레 동충개진액

술자리가 많으세요? 이유없이 피곤하세요?
365일 간(肝)건강 든든하게!

햇개나무 효능

순채해소, 구취제거 및 간해독, 변비에 도움
오장을 조화롭게 유지하고 치질에 도움
알콜중독, 지방간, 황달, 간경화에 도움

창립10주년 한정판매
2BOX 가격 22만원에 3BOX 드립니다!
* 상품 수령 후 상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100% 교환해드립니다.

지리산 흰민들레 햇개진액

주문 문의 서울 02) 508-2800
문의 경기 031) 613-2801
입금계좌 : 하나 139-910182-96707 (예금주:이택찬)

가장 완벽한 '겨울나그네'가 온다



마크 패드모어(오른쪽)와 피아니스트 폴 루이스

사진/ Marco Borggreve

'감성테너' 마크 패드모어, 리사이틀 내달 11일 고양아람누리

슈베르트곡 유명 반주자와 호흡

청아한 발성, 우아한 음색, 탁월한 해석으로 전 세계 성악 무대에서 환영받는 감성테너 마크 패드모어(Mark Padmore)가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내 첫 가곡 리사이틀을 선보인다.

마크 패드모어는 클라리넷을 전공하다가 뒤늦게 성악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영국 합창음악의 자존심으로 일컬어지는 '더 식스틴(The Sixteen)'의 일원으로 르네상스 합창음악을 하던 그는, 바로크 음악의 거장 윌리엄 크리스티에 의해 라모의 오페라 '이폴리이트와 아르시에'(Hippolyte

et Arcie)의 주역으로 전격 발탁돼 대성공을 거두었다.

이후 바로크 오페라와 종교음악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바흐 칸타타의 빼어난 복음사가로, 라모의 음악비극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유연하고 스타일리시한 오토코트르(하이테너)로, 헨델 오페라와 오라토리오에서는 언제나 좋은 취향을 보여주는 이상적인 해석자로 평가받으며 오늘날 최고의 에반젤리스트(복음사가) 자리에 올랐다.

그는 지난 2008년, 계몽시대 오케스트라와 함께 한 첫 내한 무대에서 바흐의 '요한 수난곡'을 노래해, 현존하는 최고의 에반젤리스트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

이번 첫 단독 공연에서는 슈베르트 연가곡 '겨울 나그네(Op.89, D.9110)'를 들려준다. 이 작품은 모두 24곡의 노래로 이뤄졌으며, 이중 다섯번째 곡인 '보리수'는 우리 음악 교과서에 실려있어 특히 친숙하다.

반주자로 한 무대에 서는 피아니스트 폴 루이스는 2010년 그라모폰 베스트 솔로 보컬상 등 세계 주요 음반상을 휩쓴 명반 '겨울 나그네'의 파트너로, 그 역시 최고의 슈베르트 해석자로 정평이 나있다.

'테너 마크 패드모어 리사이틀'은 12월 11일 오후 8시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하이든홀)에서 열린다.

티켓 R석 8만원, S6만원, A 4만원, B 2만원. 문의:1577-7766/ www.artgy.or.kr /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경기문화재단 4본부체제 조직 개편

내년부터 산하 8개 기관장 선발 공모제로 변경

경기문화재단이 연말 현재의 사무처를 폐지하고 본부체제로 조직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의 한 관계자는 11일 "지난 2012년부터 재단 내부에서 조직재편이 논의됐다"며 "최근 사무처 중심의 단선적 체제를 4본부체제로 전환해 자율과 책임을 강화한 조직개편 보고서가 작성돼 경영진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조직개편 보고서에는 문예창작센터 및

문예진흥사업을 담당하는 '문예진흥본부', 재단문화사업 경영을 담당하는 '경영지원본부', 재단 소속 박물관과 미술관을 통합운영하는 '뮤지엄 운영본부', 현 경기문화재단연구원의 기능을 수행할 '문화유산본부' 등 4개 본부를 신설 운영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창희 재단 대표이사는 최근 "현재의 재단 조직을 개편해 창의력을 발휘하고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본부체제로 교체할 필

요성이 있다"고 조직 개편에 긍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기문화재단은 또 내년부터 경기도박물관을 비롯한 재단 산하 8개 기관장에 대해 현재의 대표 임명제를 공모제로 바꿔 기관장의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재직 중인 8개 기관장 중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장은 경기도미술관장을 비롯해 5명이며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의 경우 현재 단장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재단은 내외부 인사 17명으로 구성된 '경기개발 발전 TF팀'을 만들어 11월부터 공식활동에 들어갔다. TF팀은 재단사업 혁신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유은총기자 yoec86@kyeongin.com

김탄사 절로나는 **역척가**

1인 15역·해외 호평·논문 발표... 14·15일 하남문화회관 무대

젊은 소리꾼 이자람의 '역척가'가 오는 14일 오후 8시, 15일 오후 7시 이틀간 하남문화예술회관 대극장 김탄사 무대에 오른다.

이자람이 독일의 극작가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희곡 '사천의 선인'을 판소리로 각색해 2011년 초연한 '역척가'는 한국뿐 아니라 프랑스, 브라질, 우루과이, 루마니아 등에서 호평을 받았다.

지난해 프랑스 초연 이후에는 프랑스 국립민중극장의 요청에 따라 지난 5월 재방문해 공연을 선보이기도 했다. 이후 프랑스 언론 및 연극 학계에 반향을 일으키며 '사천가'와 '역척가'로 논문이 발표됐고, 프랑스 공연계에서는 판소리를 새로운 극작의 방식으로 받아들이며 그녀와의 협업을 제안하기도 했다.

판소리 '역척가'는 브레히트가 1943년에 쓴 작품을 현재 대한민국 사천시에 사는 똥뚱한 처녀 순덕의 이야기로 재구성한 작품이다.

현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외모 지상주의, 학벌 지상주의, 무한 경쟁 등 사회적 병폐를 풍자와 해학이 흐르는 경쾌한 판소리에 담아냈다.

'역척가'는 작품의 대본에서 작창, 연기까지 이자람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아울러 주인공 순덕을 비롯한 15명의 등장인물을 혼자 소화하며 공연을 진행한다.

공연 관계자는 "역척가는 전통 판소리를 현대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내면서도 판소리가 갖고 있는 음악적 유희를 살리는 동시에 다채로운 리듬악기를 사용해 관객들의 흥을 돋운다"고 전했다.

가격:R석 4만원, S석 3만5천원, A석(2층) 2만원 문의:(031)790-7979 /유은총기자 yoec86@kyeongin.com 소리꾼 이자람 이미지 출처/하남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가을밤, 가곡·아리아 낭만속으로

새얼문화재단 21일 무료초청 공연... 국악인 오정해등 출연

새얼문화재단이 오는 21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31회 새얼 가곡과 아리아의 밤' 공연을 갖는다.

이경구 인천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가 지휘자로 나서며 성악가 이강호와 양송미, 류정필, 오미선, 김동규와 국악인 오정해가 함께 이번 무대에 선다.

새얼 가곡과 아리아의 밤은 1984년 1회 음악회를 개최한 이래 매년 인천시민을 감동시키는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공연 1부 첫 무대는 바리톤 이강호의 '산촌'과 '나는 이 거리의 일인자'로 시작한다.

이어 메조소프라노 양송미가 '가고파'와

'하버네라'를, 테너 류정필은 '박연폭포'와 '그라나다'를 연주한다.

인천 출신으로 국제 무대를 누비는 소프라노 오미선이 '아리 아리랑'과 '주여 평화를 주소서'를 열창하며 1부 공연 마지막 순서로 오미선과 양송미, 류정필, 이강호가 4중창 '오 나의 태양'을 선보인다.

2부는 성악가와 국악인의 만남으로 꾸며지는 순서다. 먼저 바리톤 김동규가 오페라 카르멘의 '투우사의 노래'와 '후회 없는 인생'으로 무대를 연다.

서편제의 주인공으로 알려진 오정해는 '진도아리랑'과 '너영나영'을 선보이며 오정해와 김동규 인천연합창단이 '홀로 아



오정해

김동규

리랑'을 함께 연주한다.

이번 공연의 백미는 단연 합창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천시립합창단과 인천연합창단은 '영광의 탈출'과 '경복궁 타령'으로 대미를 장식한다.

새얼 가곡과 아리아의 밤은 새얼문화재단 후원회원을 대상으로 한 무료초청 공연이다. 21일 오후 7시 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문의:(032)885-3611~4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www.tbroad.com

1 t-broad

티브로드가 세계최초로 개발한 HTML5 기반 새로운 **스마트TV**를 **천원에 만나보세요!**

월 1,000원이면 우리집 TV가 스마트 TV로 변신합니다.

스마트TV의 스마트한 기능

- 음성인식 & 모션포인팅 리모콘
- TV속 인터넷 검색
- 다양한 TV앱
- TV속 SNS

1877-7000 NAVER 티브로드 검색



대한전선, 안양 본사건물 신축부지 매각 '먹튀' 논란

<평촌스마트스퀘어 첨단산단내>

‘경영난 이유’ 당초계획 변경
일반공장단지, 산업단지 지정
시세 2배이상↑ 막대한 이득

대한전선이 옛 대한전선 안양공장 부지에 조성중인 평촌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내에 본사 건물을 신축하겠다는 당초 계획을 경영악화를 이유로 변경, 용지매각에 나서면서 먹튀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안양시 등에 따르면 대한전선은 지난 8월 말 대한전선 본사 입주 예정부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매각 협의를 안양시에 제출했다.

매각 대상용지는 평촌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S1-3블록) 3

천815㎡로, 용도는 1·2종 근생, 업무시설 등이다. 매각 예정가격은 190억7천여만원에 달한다. 대한전선측은 건물신축 대신 임대형식으로 본사 및 계열사를 안양시에 이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상황이 이렇자 대한전선의 용지매각을 놓고 일각에서 먹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일반공장단지가 산업단지로 지정되면 통상 최소 2배 이상 시세가 상승해 막대한 이득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008년 6월 발표된 대한전선 공시를 보면 대한전선측은 안양공장 부지 사업개발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ALT제1차PFV)에 안양공장 부지 26만㎡를 5천500억원에 매각하고, 47%의 법인지분을 확보했다.

또 지난 2012년 평촌스마트스퀘어 산업단지 개발이 확정되자 대한전선의 1천200억원대 우발채무가 250억원으로 대폭 낮춰져 950억원대의 반사이익을 봤으며, 같은해 12월 시의 용도변경에 따라 아파트건립마저 가능하게 돼 나머지 250억원의 우발채무도 해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전선측 관계자는 “경영 악화로 인해 오너일가에서 경영권을 포기하고 채권단이 출자전환을 해 새로운 대주주가 되면서 강도높은 구조조정과 회사매각이 진행중이다”며 “이런 상황에서 사육을 건립하는 등의 신규투자는 도저히 불가능해 용지매각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양/이석철·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kr

분당~수서 별말 지하구간 공원화사업 내년 3월 착공

분당~수서 도시고속도로 매송~별말 구간의 지상공원화(조감도)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성남시는 방음터널을 설치하던 분당~수서 도로간 별말지하차도 구간을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공원으로 확대 조성하기로 하고 내년 3월 착공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별말지하차도 구간에 공원이 조

성되면 기존 계획보다 녹지공간이 늘어나 8만3천㎡의 지상 공원이 들어서게 된다. 사업비는 1천500여억원이 투입되며 오는 2018년6월 준공 예정이다.

공원화 확대 결정에는 시민들의 참여가 큰 몫을 했다. 시는 주민 제언의 날 등을 통해 분당~수서 도로 공원화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



렴했으며 별말지하차도 구간 공원화도 다수 주민이 의견을 제안함에 따라 성사됐다.

이로 인해 오랜 기간 소음과 분

진으로 인한 피해를 감내해야 했던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 해소될 전망이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시화MTV ‘쫄개기 난립’ 부작용

제한규정 없는 규제완화 원인
356개업체중 임차 78개 달해
슬럼화로 침단·친환경 이미지
기반시설도 모자라 불편 예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첨단·친환경 산업단지로 개발해 올해 6월 분양에 나선 시화 ‘MTV’에 정부의 공장설립규모 규제완화로 ‘쫄개기’ 현상이 빚어지면서 임대공장 등 공장수호가 늘어나 이미지 저하는 물론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불편이 예고되고 있다.

11일 시흥시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 기준 MTV 입주 업체(분양)수는 모두 356개로, 이 중 임차가 78개 업체에 달한다. 시흥시의 경우 182

개 업체 중 현재 33개 업체가 임차받아 공장을 설립했다.

분양받은 업체가 일명 ‘쫄개기’를 하면서 임차업체가 늘어나고 있다.

국가산단의 규제완화 조치 등 현행법상 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현행법에는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를 한 후 입주계약을 체결하면 임대 가능하다. 특히 임대사업자는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입주계약변경 후 산단 입주 및 공장 등으로 임대할 수 있다. 산업용지의 최소필지 분할면적도 1천650㎡에서 900㎡로 규제가 완화됐다.

임차업체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단지 슬럼화로 침단·친환경 단지 이미지를 저하하고, 기반시설(도로·

주차장 등) 부족에 따른 분양·임차업체의 불만 가중은 물론 취업파로 인한 미스매칭 초래 등 산업단지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시흥시와 안산시·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제도개선에 나섰다.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동으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화멀티테크노밸리(확장단지) 관리 기본계획상 임대 제한(일정면적 이내 등) 규정 신설을 정부에 요구했지만 임대제한 규정 복원은 전 국가산단을 대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

시흥시 관계자는 “시화 MTV내 임차업체가 늘고 있다”며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기존 산업단지의 이미지를 벗지 못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상습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자동차세와 차량관련 상습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가 전국적으로 실시된 11일 오전 수원 시내의 한 주차장에서 영통구청 세무과 직원들이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하태환기자 hath@kyeongin.com

“김포공항 골프장 건설계획 철회를”

부천시민연대, 전면중단 촉구

“김포공항습지 골프장 건설을 위한 형식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중단하고 골프장 사업 추진을 철회하라.”

부천YMCA 등 부천시민연대회의는 11일 김포공항 골프장 건설 계획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연대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04년부터 부천 오정, 서울강서 일원에 27홀(서울 18홀·부천 9홀) 규모로 계획된 김포공항 골프장 건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당초 김포공항 골프장 예정부지 99만5천896㎡를 포함한 127만7천143㎡가 법정보호종만 31종이 서식하는 생명의 땅으로 변화한 만큼 수의만을 목적으로 제출된 환경

영향평가서는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7월31일 한국공항공사로부터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인서울 27 골프클럽(주)’이 의뢰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의 현장조사는 사업자 선정 이전에 대부분 이뤄진 내용으로 사전에 짜인 각본에 따라 진행된 사업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 취소를 주문했다.

이들은 또 4계절을 면밀히 조사해야 할 환경영향평가 초안 보고서엔 2·7월 두 계절만 조사한 내용이 포함된다. 인근 농지와 주변 습지대가 배제된 채 수질만 한정적으로 평가한 만큼 부실한 짜맞추기 조사라고 비판했다.

부천/전성천기자 junsch@kyeongin.com

‘상습 결빙’ 하남 은고개에
원격제설방재시스템 설치

하남시는 겨울철 상습 결빙지역인 상산곡동 은고개 500m 구간에 원격제설방재시스템 ‘스마트제설’ 설치를 완료하고 오는 12월 가동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스마트제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제설지점을 선택하면 저장탱크의 제설제가 노즐을 통해 살포되는 방식으로, 담당 공무원이 출장이나 퇴근 후에도 제설예보·특보 발생 시 신속한 제설 작업이 가능하다. 제설제로 친환경액상제를 사용, 환경 오염 및 도로 파손 등의 문제점이 있는 염화칼슘의 단점도 보완했다.

시는 이번 시스템의 제설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 효과가 검증되면 연차적으로 설해 취약지역인 팔당대교·배알미대교 등에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하남/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이필운시장 선거캠프 출신 채용 안돼”

FC안양 서포터스 반대 성명

안양시민프로축구단(이하 FC안양)의 공식 서포터스인 안양서포터즈 연합이 최근 낙산 인사 의혹(경인일보 10월 30일자 20면 보도)이 있고 있는 이필운 시장 선거캠프 출신에 대한 채용반대 성명서를 발표

해 FC안양 직원 채용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안양서포터즈연합은 11일 FC안양 낙산 인사 의혹에 대한 축구팬들의 공식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합측은 성명서를 통해 “FC안양은 지난 2004년 LG차타스 축구단 연신에 대한 채용반대 성명서를 발표

다함과 열광 끝에 탄생한 시민의 축구단이며 창단 2년만에 K리그 클래식(1부리그) 승격을 목표로 둔 구단이다”며 “이런 상황에서 시는 선수단의 임금체불 문제와 더불어 시즌이 끝나기도 전에 이 시장의 측근을 사무국의 요직에 앉히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FC안양 축구팬은 물론 지역정치권까지 나서 시측에 진심어린 해명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인사권자인 이 시장은 묵

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의혹의 중심에 선 내정자들은 공공연히 구단 사무실을 방문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측은 “만약 시가 축구팬들의 입장을 무시한채 낙산 인사를 강행한다면 시즌권을 비롯한 구단의 모든상품 구매를 거부하고, 경기 관람 역시 보이콧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양/이석철·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NIB 남인천방송

25,000원

고객님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시작

완벽한 보안을 위한 최고의 선택

남인천방송 CCTV

고객님의 안전지킴이 남인천방송

1544-0777 / www.nibtv.co.kr

“도대체 몇 명을 죽여야 살인죄인가”

세월호 유가족들의 ‘잔혹한 하루’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은 수색중단 요청 발표에 애써 슬픔을 억눌렀지만 승무원 신고를 보고는 분노를 폭발했다.

11일 오후 2시 30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마련한 대형 스크린을 통해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4명에 대한 판결을 지켜보던 유가족 22명은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듯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일부 유가족은 “말도 안 된다. 그럼 우리 애들은 누가 죽인 거냐”며 “대체 몇 명을 죽여야 살인죄냐”며 오열했고, 일부 유가족들은 자리를 박차고 법정 밖으로 나가며 거세게 항의했다.

“잠수사에 감사” 수색중단요청하며 억눌렀던 감정 “모두 재판이 아니라 살인자 변호” 법정 안팎 폭발 소식들은 단원고 재학생도 “배신당한 기분” 분노

몇몇 유가족들은 “실망스러운 판결이다. 왜 살인죄가 적용이 안 되냐”며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살인자를 애써 변호하려는 것만 같았다”고 울부짖었다.

실종자 가족들은 이날 오전 11시께 전체 수색중단 요청 때만 해도 “우리의 영웅 잠수사에 감사하다”며 애써 슬픔을 억눌렀다. 하지만 재판에서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들에게 살인죄 혐의가 적용되지 않자 억누른 슬픔이 분노와 오열로 바뀌었다. 단원고 희생자 지상준(17)군의 아버지 지용준씨는 “선장이 생명을

방치한 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살인이 아니냐”며 “항소를 통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반발했다.

유가족들은 재판이 끝나자마자 안산 하늘공원으로 향했다. 이날 하늘공원을 찾은 단원고 이승민(17)군의 어머니 이은숙씨는 아들이 잠들어 있던 낱알당의 벽을 붙잡고 무릎을 꿇은 채 통곡을 하기 시작했다. 이씨는 사고 전 아들과 단 둘이 살았던 터라 사이가 남달랐던 모자간이었다. 이씨는 “우리 아들 어떡하니, 재판에서 살인죄가 아니라, 누가 내 아



“누가 내 아이를 죽였나...” 법원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69)씨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한 11일 오후, 세월호 침몰사고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이 안치된 안산 하늘공원을 찾은 유가족이 사고로 희생된 자녀의 사진을 어른마시고 있다. /하태형기자 hath@kyeongin.com

들을 죽인 거냐”라며 “아이들을 죽인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고 하니 억울해서 못 살겠다”고 오열했다.

뒤늦게 재판 결과를 전해들은 단원고 재학생들도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선체 수색 중단 발표 때만 해도 비

교적 차분하게 수업에 임했던 학생들은 재판 소식이 전해지자 술렁이기 시작했다.

한 학생은 “사법부를 믿을 수 없다. 그럼 우리 친구들은 누가 죽인 거냐”고 분통을 터트렸고, 몇몇 학생들은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듯 흐느끼

기 시작했다.

단원고 3학년 백모(18)군은 “아무도 우리 후배들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주지 않는다”며 “엄중한 법의 판단을 기대했는데 배신당한 기분이다”고 성토했다. /김범수기자 faith@kyeongin.com

304명 꽃 같은 생명 희생 누구도 ‘책임’ 묻지 않았다

세월호 사고 1심 결과 의미

세월호 침몰사고로 304명의 꽃 같은 생명이 희생됐지만, 누구도 그 죽음에 책임을 지지 않았다.

사고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됐던 이준석 선장에 대한 살인죄는 무죄로 판결났고,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 역시 무죄판결을 받았다.

살인죄 성립의 핵심은 ‘이씨가 퇴선명령을 했느냐’는 것이다.

이씨는 검찰조사에서 지속적으로 “해경의 구조정이 도착했을 무렵, 조타실에 함께 있던 2등 항해사인 김영호에게 퇴선시킬 것을 명령했다”고 말했다. 김씨도 “선장의 퇴선명령을 양대호 사무국장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3등 항해사 박한결은 “이준석의 퇴선지시가 없었고 김영호도 이를 사무국에 전달한 바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당시 함께 조타실에 있었던 필리핀 여가수가 “박씨가 계속해서 울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재판부는 박씨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또한 이씨가 강원식, 김영호 등과 허위진술을 모의했다는 검찰의 주장도, 탈출 직후 이들이 함께 있지 않았다는 점과 퇴선명령의 시기, 경로

등 세부적인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살인죄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지적하며 퇴선명령을 했다는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더불어 재판부는 이씨 등이 ‘조타실에서 승객들보다 먼저 나가야 살 수 있다는 말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필리핀 여가수가 당시 이들이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고의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도 세월호처럼 조난 선박에 탄 승무원들이 수난구호를 해야 하는 의무자가 아니라, 사고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 선박 승무원에게 적용돼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수난구호법 해당 조항을 전제로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선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검찰이 이 선장의 주요 죄명인 살인이 무죄로 인정될 때를 대비해 1차 예비적으로 적용된 특가법 위반 혐의가 차례로 무죄 판결이 나오자 2차 예비적 혐의로 적용된 유기치사·상이 간신죄도 인정됐다. /공지영·김영훈기자 jyg@kyeongin.com

소중한 사람들과 잊지 못할 추억을...

2014 경인일보 송년디너쇼

2014.12.15(월)~17(수) 오후 6시 30분
과천경마공원 럭키빌 6F 컨벤션센터

백지영, 신유, 정수라, 제이투엠 (MC_황기순)의 화려한 무대와 최고의 특선디너코스

다시 오지 않을 2014년 12월의 아름다운 밤 - **Adieu~2014!**
그 행복한 시간을 가장 소중한 분들과 함께 영원히 잊지 못할 뜻깊은 추억으로 간직하실 절호의 기회!

주최 **경인일보** 후원 세계적 호텔 **백류하이엔드호텔** (주)경인항공여행사 **한국대표**

예약 및 문의전화 : 경인일보 사업부 **031_231_5511**

갈길 먼 아빠들의 육아휴직

경인지역 신청 늘었지만 여성 대비 5%도 안돼

최근 남성들의 육아휴직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여성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1월부터 10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6만4천646명 중 남성은 2천798명으로 여성 6만1천848명에 비해 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육아휴직은 지난해 같은 기간 1천871명에 비해서는 늘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인천지역의 경우 육아 휴직을 사

용한 여성 근로자가 3천4명(9%)인 반면 남성 근로자는 132명(4%)에 그쳤다.

경기지역은 여성 육아휴직이 1만6천630명(95%), 남성은 809명(5%)이었다.

육아휴직제도는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두고 1년 이상 해당 사업장을 다닌 근로자들이 1년 이내에서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신청 대상은 남·여 구분이 없다. 그러나 아직까지 육아휴직은 여

성이 쓰는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보니 일선에 있는 직장 근로자들은 사용하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4살과 3살된 자매를 두고 있다는 아빠 직장인 지모(25)씨는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어떻게 신청해서 쓸 수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눈치가 보여 육아휴직을 잘 쓰려고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적극 나서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승(통상임금 40%~60% 상향) 등 남성들의 육아휴직 촉진을 위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윤철기자 say@kyeongin.com

교직원 성범죄 절반, 학교 안에서 일어나

박승원 도의원 행감자료

최근 3년간 경기도내 교직원들이 저지른 성범죄중 절반가량이 교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도교육청이 도의회 박승원(새정치민주연합·광명3) 의원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4년 9월까지 3년간 도내 공립 초·중·고교 교사와 행정직원 등 교직원이 저지른 성범죄는 모두 43건이며, 이중 절반가량인 21건이 학교내에서 발생했다.

또 43건중 10건은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였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19건, 중학교 7건, 고등학교 17건으로 초등학교 교원의 성범죄가 가장 많았다.

지난 2012년 A초교 교감은 여학생 9명을 강제 추행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같은해 B중학교 교사는 제자를 본인의 승용차안에서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

또 도내 C고교 교사는 제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내용의 문자를 수차례 보내는 등의 성희롱을 하다가 적발됐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이날 올 상반기 비위행위가 적발된 교직원 25명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발표했다.

징계를 받은 공무원중에는 음주 운전이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회계관리 소홀 4명, 회계질서 문란 2명,

미성년자 추행 1명, 공금횡령 1명,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1명, 직무관련 골프 접대 1명, 모욕죄 1명, 무단 결근 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대현·공지영기자 kimdh@kyeongin.com

날씨 | 12일 수요일 (음력 윤 9월 20일)

이른아침 빗소리 알람 비 오겠다. 아침 최저기온 6~7도, 낮 최고기온 8~11도의 분포가 되겠다.

인천	미물 07:44 20:11 샘물 01:59 13:55	해동 07:07 17:24 달빛 22:10 11:30
백령도 7/8	파주 6/9	의정부 7/9
강화 7/9	서울 7/9	양평 6/11
인천 7/9	수원 7/10	전국날씨
강릉 7/10	평택 7/10	강릉 8/14
대전 7/12	광주 8/13	대구 7/15
부산 10/17	제주 13/16	전국날씨

강수량: 오전 수원 100%, 인천 100%, 서울 100%, 강릉 100%, 대전 100%, 전주 100%, 광주 100%, 대구 100%, 부산 100%, 제주 100%

바다날씨: 풍향 풍속 파고
서해 서~북서 8~16 1.0~3.0
남해 서~북서 7~14 0.5~2.5
동해 남서~서 7~16 0.5~3.0

내일 이후 날씨: 13일(목) 14일(금) 13일(목) 14일(금)
인천 1/4 1/10 수원 1/3 1/11
서울 2/5 1/11 의정부 2/5 1/11
파주 2/5 1/11 백령도 2/5 1/11

유씨일가 범죄수익 추징은 말뿐?

검찰, 기소전 5차례나 재산 1천200억 동결 불구 유대균 구형맨 '침묵'... '보여주기식' 인정할 풀 부패재산 피해회사 반환에 정부 환수도 어려워

검찰이 유병연(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범죄수익을 추징하겠다고 수차례 밝혔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추징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유씨 일가 계열사 자금 7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3년이 선고된 대균씨에 대한 범죄수익 추징을 재판부에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균씨는 상표권 사용료,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청해

진해운 등 계열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앞서 5차례에 걸쳐 기소 전 추징보전을 통해 숨진 유씨를 비롯한 대균씨, 차남 학기(42)씨, 장녀 심나(46)씨 등의 재산 1천200여억원을 동결 조치했다. 당시 검찰은 "범죄수익을 박탈하고, 세월호 피해 회복을 위한 책임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보전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유씨 일가에게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유씨 일가 중 유일하게 붙잡은 대균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을 뿐 정작 범죄수익 추징은 요구하지 않았다. 검찰의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 신청을 인용했던 법원도 검찰의 요구가 따로 없어 추징을 명령하지 못한 상황이다.

관련 법에는 횡령·배임죄로 얻은 부패재산에 대한 추징금은 국가가 아닌 피해 회사에 돌아가도록 돼 있다. 대균씨의 횡령 범죄 피해회사는 청해진해운(횡령액 35억원)을 제외하고는 세월호 참사와 직접 연관이 없는 계열사이기 때문에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해 다시 환수해가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검찰이 동결해 놓은 유씨 일가 재산 중 상당수는 정부가 구상권 청구를 위해 민사상 가입류를 해놓

은 재산과 겹쳐 선불리 추징조치를 하지 못한 이유로 작용했다.

검찰은 이 문제를 놓고 법무부 등과 법률 검토를 가진 다음 항소심 재판에서 추징을 요청할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검찰의 기소 전 추징보전은 '보여주기식'으로 유씨 일가 재산을 묶어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셈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기소 전 추징 조치가 마치 세월호 책임재산 확보에 큰 도움이 되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됐지만, 실상 국가는 실익이 없다"며 "횡령·배임 사건에서 기소 전 추징보전을 법원에 신청한 것 자체부터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밝혔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인천해광학교 시각장애인 오케스트라 '감동의 무대'



11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인천종합문화예술관에서 '인천해광학교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를 앞두고 열린 리허설에서 학생들이 환하게 웃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장애이긴 천사 '희망을 연주하다'

약보없이 모두 외워서 공연 지휘자 목소리 이어폰 전달 곡 끝날 때마다 '박수' 화답

50여명의 시각장애인 오케스트라 단원은 희망을 연주했고 1천300여명의 청중은 감동을 선물로 받았다.

시각장애 특수학교인 인천해광학교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가 11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렸다.

평소에 받는 데 익숙했던 시각장애 단원들은 이날만큼은 배푸는 입장이 됐다.

이들 연주자 앞에는 악보가 없다. 보이지 않으니 다 외워서 연주한다. 바이올린 연주자 고주형(4학년)군은 "악보도 다 외웠고, 연습을 많이 해 자신있다"며 "나 때문에 함께 바이

올린을 공부한 누나와 매일 학교에 데려다 준 부모님에게 멋진 공연을 선물로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지휘자는 무대 뒤편 한 구석에서 벽을 보며 오케스트라를 지휘했다. 핀 마이크를 통해 모든 단원이 귀에 끼고 있는 이어폰에 전달되면 그 소리에 맞춰 연주가 진행됐다.

이날 오케스트라에서는 목소리가 바로 지휘봉이었고, 악보는 이미 단원들의 머릿속에 있었다.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과 귀에 익숙한 동요메들리 아리랑과 애국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편곡해 첫선을 보인 통일의 노래까지 1시간여 동안 진행된 이날 공연은 모든 이에게 희망과 감동을 안겨줬다. 한국 한곡이 끝날 때마다 청중들은 아낌없는 박수로 화답했다.

박기화 상임지휘자는 "평소 도움만 받아오던 장애인들이 오늘날만큼

비장애인에게 감동의 선물을 주는 날"이라며 "프로 연주자는 아니지만 모두의 노력과 열정으로 어려움을 극복한 아름다운 무대가 됐다"고 말했다.

/김성희기자 ksh96@kyeongin.com



연수구의의회 '행동강령' 또 보류

월세 밀린 음식점 주인 법원 강제집행에 '양심' 집주인 부부 흥기 폭행

인천시 연수구 주택가 인근의 식당 주인이 법원의 강제집행을 당하던 중 식당 앞에 있던 채권자 부부를 차로 치고 흥기로 찌른 사건이 발생했다.

11일 인천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께 동춘동의 고깃집 앞에서 이 식당 주인 이모(51)씨가 자신의 제네시스 차량으로 박모(62·여)씨를 치어 넘어뜨리고, 길이 12cm의 흥기로 박씨의 남편 정모(62)씨의 가슴 등을 두 차례 찔렀다. 이씨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고, 피해자 부부는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작년 8월에 보증금 5천만원, 월세 700만원에 이 건물을 계약했다. 월세가 몇 개월 밀리자 집 주인이 명도 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법원의 강제집행이 이뤄졌다. 경찰은 이씨가 강제집행에 불만을 품고 채권자 부부에게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직무관련 위원회 참여금지 의정활동 제약우려 의견에 다음 정기회때 올리기로

구의원이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공무원 등에게 경조사를 통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동 강령 조례안을 연수구 의회가 또다시 보류시켰다.

이 조례는 지난 6대 의회에서 2012년 8월 이후 5차례 심사 안전에 올랐지만 모두 상임위에서 부결된 것으로, 올해 출범한 7대 의회 의원들에 의해 다시 보류된 것이다.

인천 연수구의의회는 제184회 임시회에 올랐던 '연수구의의회 의원 행동

강령 조례안'을 보류하고 11일 회기를 마쳤다.

이 조례안은 새정치민주연합 김준식(옥련 1·2동, 동춘 2·3동), 정현배(선학동, 연수 2·3동, 청학동)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7조), '공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11조), '경조사 통지와 경조 공품 수수 제한'(17조), '성희롱 금지'(18조) 등을 규정한 행동 강령을 위반한 의원을 누구든지 시의회 의장,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게 한 내용이다.

연수구의의회는 이번 회기에 올라온 행동 강령 조례를 보류하고 다음 정례회 때 다루기로 했다.

연수구의의회 김선석 운영전문위원

원은 "행동강령 내용이 너무 (의정 활동을) 제약하는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신중하게 보자는 취지로 안건이 보류됐다"며 "이 안건을 좀더 깊이 보고, 다음 정기회 때 올리는 것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전했다.

인천 광역·기초 의회 중 행동 강령 조례를 제정한 곳은 계양구(2011년 10월), 남구(2013년 5월 제정), 강화군(2013년 10월), 남동구(2013년 11월), 부평구(2013년 11월), 옹진군(2013년 12월) 등이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난 10월 집계 따르면 전국 243개 광역·기초 의회 중 78개 의회가 행동 강령 조례를 제정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구청 공익요원, 공무원 둔기로 때리고 도주

인천시 서구 공익요원이 함께 일하는 직원을 둔기로 때리고 달아나 경찰이 행방을 쫓고 있다.

인천서부경찰서에 따르면 11일 오

전 8시45분께 서구청 지하 사무실에서 공익요원 박모(34)씨가 화장실을 다녀오던 직원 조모(44·무기계약직)씨의 머리 등을 둔기로 5차례 때리고

달아났다. 사건 직후 조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청 문서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들은 이 곳에서 10개월째 단둘이 근무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김주영기자 kij88@kyeongin.com

무선랜의 절대강자! 루커스!

특허 받은 안테나기술을 적용한 강력한 무선 송수신 능력 - SMART Wi-Fi

Ruckuswireless Indoor & Outdoor, Controller, NMS 제품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1459-2 텔레트론빌딩 6층

세계 WLAN 제품 판매 TOP 1!

전세계 2,500개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WLAN 시장 브랜드 1위 제품 - 루커스!

미국 캘리포니아주 서니베일에서 2004년에 설립한 루커스는 순수 무선 기업으로 2010년 4년 만에 1,146% 성장하였으며 2010년을 기준, Carrier Wi-Fi Market의 41%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타사제품
Radio와 Antenna
1:1 관계

Zoneflex
Radio와 Antenna
1:다(多) 관계

Smart Antenna
커버리지 확대 / 성능 및 신뢰성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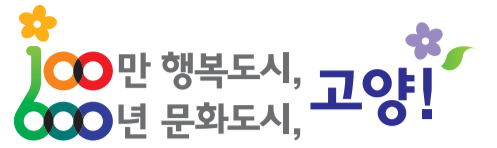
Smart Mesh
스스로 최적화 되는 무선 메시

Smart Sec
단순·안전한 WLAN 접속

Smart Cast
어플리케이션 및 사용자 인식 QoS

☎ **제품문의**
TEL : 031-340-7000
Mobile : 010-8975-8677

FAX : 031-340-7199
E-Mail : sales@teletron.co.kr



제 5회 고양시 수험생 & 청소년을 위한

2014 DREAM CONCERT



진행 박요한

crayon POP



크레용팝



출연진

진행 박요한

1부(동아리 그룹)
스태디 파이어 (댄스)
TOT (신앙비즈니스고)
FoR (백석고)
스파크 (경기영상고학교)
특별출연
넛드 (부천 원미고)

2부(호형가수)

A4

크레용팝

2014. 11. 28(금) 오후 2시 30분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

Goyang Aram Nuri

Aram Concert Hall

주최 : 고양시 주관 : 고양필하모닉오케스트라 경인일보

후원 : 고양문화재단 동물체험 박물관 테마동물원 ZooZoo NH 농업고양하니클럽 일산아이네트안경.콘택트

전석 무료 공연문의 031-971-5970 (고양필하모닉오케스트라)